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1

[1~3] 다음은 ○○대학교 역사학과 신입생 선발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면접관: 요즘 텔레비전 사극에서 극적인 재미를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원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 혹은 반대 중에서 한쪽을 택하고 근거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자: 저는 어떤 이유로든 사극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된 설문 조사에서 사극을 통해 역사를 배운다고 응답한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사극이 방송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면접관: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지원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역사 속 인물을 한 명 선택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지원자: ㉡ 호동 왕자와 낙랑 공주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호동 왕자의 아버지인 대무신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무신왕은 고구려 3대 임금으로서 한나라로부터 고구려를 지켜내는 한편, 동부여와 낙랑을 잇따라 공략하여 고구려의 영토를 획기적으로 넓힌 업적을 남긴 임금입니다.

면접관: 다음 질문입니다. 지원자는 자기 소개서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교내 활동으로 3학년 때 참여한 문화재 보호 관련 봉사활동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기록부를 보니 중고 장터 봉사활동 시간이 훨씬 많네요. 중고 장터 봉사활동은 뭔가요?

지원자: 교내에서 기부 받은 중고품을 판매한 수익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봉사활동입니다. ㉢ 제가 속했던 동아리에서 주관하여 운영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기억에 오래 남을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면접관: 그 봉사활동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원자: 네. ㉣ 학교에 허락을 받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온라인 중고 장터를 마련해서 판매 가능한 기부 물품과 가격을 등록하여 판매한 뒤, 수익을 자선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면접관: 다음으로 지원자의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자: ㉤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듯 역사학의 기초가 되는 사료 해석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 역사학과에 입학하게 된다면 먼저 역사 문헌학을 공부하여 사료를 다루는 관점과 방법을 익히고 싶습니다. 역사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사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 마지막 질문입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자료를 활용하여 두 입장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1. 다음에서 면접관의 질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면접 질문 계획]

- 특정 현상에 대한 지원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을 한다. ... ①
- 지원자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역사 속의 인물에 대해 질문을 한다. ②
- 사전에 확보한 정보 중에서 의문점이 있는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 ③
- 지원자의 대답 내용에서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경우 보충 질문을 한다. ④
- 지원자의 인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우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한다. ⑤

2. ㉠~㉤에 나타난 지원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매체에 보도된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 ② ㉡: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활용하여 화제를 제시하였다.
- ③ ㉢: 타인의 평가를 들어 앞서 설명했던 활동의 가치를 부각하였다.
- ④ ㉣: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였다.
- ⑤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미래 계획을 드러내었다.

3. 면접관의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지원자의 '질문의 의도 파악'과 '답변의 방향'이 바르게 묶인 것은?

[질문의 의도 파악]

- ㉠ 입장을 선택하라고 했으니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이구나.
- ㉡ 자료를 활용하라고 했으니 사실을 묻고 있는 것이구나.

[답변의 방향]

- ㉢ 내가 지지하는 입장의 긍정적 측면이나 장점을 부각해야겠어.
- ㉣ 두 입장에 대해 내가 아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겠어.
- ㉤ 내가 지지하지 않는 입장의 역사학자를 사례로 들어야겠어.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4~5]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이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입니다. 텔레비전 자막은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제목이나 배역, 해설, 설명 등을 화면에 비추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자막은 왜 사용할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막은 주로 장면의 상황을 요약하여 제시하거나, 화면 속 인물의 말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또 장면에 어울리는 글로 재미나 감동을 유발하기 위해 쓰기도 합니다.

이런 자막은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은 물론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널리 활용되는데, 문제는 맞춤법에 맞지 않는 자막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자막은 오락 프로그램에 많이 나옵니다. 잠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죠. (동영상을 보여준 후) 자막이 몇 번 사용되었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다가 한 청중의 대답을 듣고는 놀란 표정으로) 아니, 여덟 번이라고요? 지금 자막에 관해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 너 혹시 자막에 집중하지 않고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만 본 건 아냐? (청중들 웃는다.) 자막은 모두 열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막들에서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경우를 찾으셨나요? 하나씩 확인해 보죠. 이 자막에서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좋아용’입니다. 이 자막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이 자막에서는 ‘차칸 남자’에서 ‘차칸’, 이 자막에서는 ‘내가 먹의리’에서 ‘먹의리’가 맞춤법에 맞지 않습니다. 5분 동안 사용된 열 개의 자막 중 무려 세 개의 자막에서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방송된 오락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결과, 한 프로그램 당 평균 15 번이나 이런 자막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텔레비전 자막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바로 국민의 언어생활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락 프로그램의 주 시청자인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는 맞춤법이 잘못된 텔레비전 자막을 사용한 프로그램 제작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막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은 바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하는 기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방송 모니터 요원이 되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맞춤법이 잘못된 텔레비전 자막이 나오면 방송국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남기는 것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다음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발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번 과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밝히는 말하기였지? 그렇다면 얼마 전에 맞춤법에 맞지 않는 텔레비전 자막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을 발표해야겠어. ㉠ 먼저 텔레비전 자막의 개념과 기능을 밝히며 시작해야겠어.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 자막 중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많다는 점을 드러내야겠어. ㉡ 이때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주면 청중이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는 ㉢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서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시해야겠어. 마지막에는 ㉣ 청중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을 유도해야겠어. 참, ㉤ 발표 중에는 질문을 통해 청중과 상호작용을 해야겠어.

① ㉠ ② ㉡ ③ ㉢ ④ ㉣ ⑤ ㉤

5. 다음은 발표를 들으며 학생들이 한 생각이다. 다음에 나타난 학생들의 듣기 전략을 파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학생 1: 5분 동안 틀린 자막이 세 개나 나오는 방송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발표자가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겠어.
- 학생 2: 오락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기관이 어디일까?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할 텐데.
- 학생 3: 동작은 상황에 어울리는데, 억양의 변화가 없어 좀 지루해.
- 학생 4: 맞춤법에 맞지 않는 자막이 늘어나는 것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하는 기관만의 잘못일까? 가장 큰 잘못은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있잖아.
- 학생 5: 발표자가 △△△와 친한 건 알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들도 이 발표를 듣고 있는데 반말은 좀 심했어.

- ① 학생 1: 발표자의 발표 준비 상황을 추리하며 들었다.
 ② 학생 2: 발표자가 활용한 근거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들었다.
 ③ 학생 3: 발표자가 사용한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들었다.
 ④ 학생 4: 발표자의 주장을 들으며 자신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⑤ 학생 5: 발표자가 공적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판단하며 들었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학교 신문에 투고할 논설문 쓰기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학생의 구상]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다는 뉴스를 본 후에 장애인 고용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었어.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중심으로 글을 써 봐야겠다. 우선 믿을 만한 출처에서 자료를 수집해야겠어. 그리고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현황, 문제점과 원인, 해결 방안 순으로 글을 구성해야겠어. 학교 친구들이 읽을 글이니까 가급적 쉬운 어휘를 사용해야겠어.

[자료]

(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통계 자료

1. 장애 인구 고용률과 전체 인구 고용률

장애 인구 고용률	전체 인구 고용률
36.0 %	60.4 %

2.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 현황

불이행	이행
468개(76.7 %)	142개(23.3 %)

(나) 전문가 인터뷰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할당제 장애인 고용 정책을 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고용 할당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 대신에 고용 할당금 납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미미한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다) 신문기사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은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공, 작업 환경 개선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비할당제 장애인 고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높다. 스웨덴에서는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달리 장애인들의 삶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생의 개요]

- 주제: 할당제 중심의 장애인 고용 정책을 보완하자.

I.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현황 ㉠

II.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의 문제점과 원인

가. 의식적 차원 ㉡

나. 제도적 차원 ㉢

2.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의 문제 해결 방안

가. 의식적 차원 ㉣

나. 제도적 차원 ㉤

III. 결론

6. [학생의 구상]에 나타난 작문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평소 관심을 가졌던 내용을 중심으로 제재를 선정한다.
- ② 자기 성찰의 목적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생성한다.
- ③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 조직 방식을 결정한다.
- ④ 정보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 ⑤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한다.

7.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개요]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는 (가) - 1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고용률이 낮은 현실을 제시하고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해야겠어.
- ② ㉡에서는 (가) - 1과 (나)를 활용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고용 할당금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외국에 비해 소홀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해야겠어.
- ③ ㉢에서는 (가) - 2와 (나)를 활용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의 원인으로 기업의 장애인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야겠어.
- ④ ㉣에서는 (다)를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서 장애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해야겠어.
- ⑤ ㉤에서는 (나)와 (다)를 활용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함을 주장해야겠어.

8. <조건>에 맞춰 쓴 결론의 일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 건 > —
- ‘의식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두 포괄할 것.
 - ‘설의법’을 사용할 것.

- ① 스웨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정부의 세금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 ② 진정한 기회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장애인도 동등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③ 채찍만을 내세웠던 우리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이제 당근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기업에 제공할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 ④ 정책 도입은 사회적 합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사회적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 ⑤ 할당제 정책은 억지로 강요하는 방식인 반면, 비할당제 정책은 자발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비할당제가 할당제보다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이 아니겠는가?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홈페이지에 게시판 이용을 안내하는 글을 썼다.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청소년 토론장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 검색 안내

게시판에 토론 주제를 올리기 전에 홈페이지 위에 있는 검색 기능을 먼저 이용해 주십시오. 기존과 동일한 주제로 ㉠ 작성된 글은 작성자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추천 안내

‘추천’을 클릭하면 해당 글의 점수가 올라가며, 추천이 많은 글은 게시판의 상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추천을 많이 받으면 글 제목의 글자색이 ㉡ 틀리게 표시될 것입니다. ‘비추천’이 많은 글은 게시판의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 우리 홈페이지는 15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능은 글당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토론장을 건설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게시판 소개

게시판을 이용할 때 상업적 목적을 지닌 광고성 글을 보신다면 ㉤ 회원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버튼은 글의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9.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게시판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작문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② 게시판 이용의 편의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문은 개별 독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③ 게시판 이용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작문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④ 게시판 이용상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문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 행위이다.
- ⑤ 게시판을 이용한 소감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작문은 친교적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표현 행위이다.

10. ㉠~㉤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작성되진’으로 고친다.
- ② ㉡: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다르게’로 바꾼다.
- ③ ㉢: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④ ㉣: 하위 내용을 고려하여 ‘신고 안내’로 수정한다.
- ⑤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회원으로서’로 고친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접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표준 발음법 - 받침의 발음]

제10항 접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로 발음한다.

제14항 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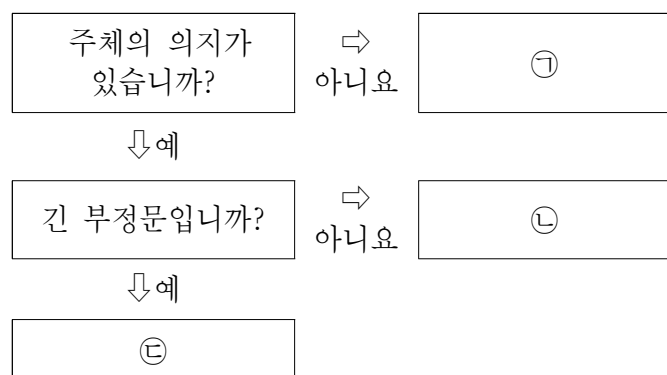
- ① 제10항을 보니, ‘뭇’을 [목]으로 발음해야겠군.
- ② 제10항을 보니, ‘앉는’을 [안는]으로 발음해야겠군.
- ③ 제14항을 보니, ‘끓은’을 [할튼]으로 발음해야겠군.
- ④ 제14항을 보니, ‘없어서’를 [업썌서]로 발음해야겠군.
- ⑤ 제14항을 보니, ‘여덟이다’를 [여더리다]로 발음해야겠군.

12. <보기>의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부정문에는 주체의 의지에 의한 행동의 부정을 나타내는 ‘안’ 부정문과 주체의 의지가 아닌, 그의 능력이나 외부의 원인으로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못’ 부정문이 있다.

‘동생이 잔다.’라는 긍정문을 아래의 과정을 통해 부정문으로 바꾸어 보자.



	㉠	㉡	㉢
①	동생이 자지 못한다.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안 잔다.
②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안 잔다.	동생이 자지 않는다.
③	동생이 안 잔다.	동생이 자지 않는다.	동생이 못 잔다.
④	동생이 자지 못한다.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자지 않는다.
⑤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안 잔다.	동생이 자지 못한다.

13. <보기 1>은 접미사 ‘-시키다’와 관련하여 국어사전을 찾아본 결과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시키다’가 바르게 사용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1 >

국어사전의 정보 1
-시키다 ㉠ (서술성을 가지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국어사전의 정보 2
사동 ㉡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동사의 성질.

< 보 기 2 >

ㄱ. 내 힘으로는 군중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ㄴ. 여러분들께 저희 가족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ㄷ. 우리 군대는 적군을 항복시켜 사실상 전쟁을 끝냈다.
 ㄹ. 경수는 몸이 아픈 수희를 병원에 급히 입원시켰다.
 ㅁ. 모든 기계를 가동시켜도 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14. ‘높임 표현’과 관련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머니: 진우야, 엄마 좀 도와줄래? (손에 든 짐을 보여 주며) 할머니 ㉠ 택에 가져갈 건데 너무 무겁구나.
 진우: ㉡ 잠시만요. (한 손에 짐을 들고, 다른 팔로 어머니의 팔짱을 끼면서) 사모님, 같이 ㉢ 가실까요?
 어머니: (웃으며) 애도 참. 어서 가자. ㉣ 할머니께서 기다리실 거야.
 진우: 할머니 택까지 ㉤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 ① ㉠은 ‘할머니’와 관련된 대상을 높여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② ㉡에서는 보조사 ‘요’를 붙여 대화 상대방을 높인 표현이다.
 ③ ㉢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어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④ ㉣은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⑤ ㉤은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우리말 특정 부사어는 서술어와의 호응이 매우 고정적이다. 그래서 부사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된다.

- ①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마라.
 ② 나는 나대로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③ 수지는 차마 친구에게 사실을 말하였다.
 ④ 이런 사건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⑤ 이 시험에서는 반드시 직접 쓴 글을 제출해야 한다.

16.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 보 기 1 >

국어의 표기법은 이어 적기에서 끊어 적기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여기서 이어 적기란 형태소를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방식이고, 끊어 적기란 각 형태소들을 분리하여 적는 방식이다. 한편 근대 국어에는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에 형태소의 모음 사이에서 나는 자음을 각각 앞 음절의 종성으로 적고 뒤 음절의 초성으로 적는 과도기적 방식이 나타났는데 이를 거듭 적기라 한다.

< 보 기 >

부영이 對答(대답)하야 같오디 이 地方(지방) 슝름은 내 ㉠ 우름 쇼리를 미워하논 故(고)로 나는 다른 地方(지방)으로 올무랴 하노라 하니 비둘기 ㉡ 우서 같오디 즈네 우는 쇼리를 곳치지 안코 居處(거처)만 옮기면 如舊(여구)히 또 ㉢ 미워함을 免(면)치 못하리라 하얏소 이 이익기는 참 滋味(차미)잇습니이다 여러분 중에도 自家(자가)의 악한 ㉣ 일은 곳치지 안코 다른 데로만 가랴고 하느니 ㉤ 잇스면 이는 亦是(역시) 이 비둘기의게 우슴을 보오리다
 - 「신정심상소학」(1896년)에서 -

(현대어 풀이)

부영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지방 사람은 내 울음소리를 미워하는 까닭에 나는 다른 지방으로 옮기려 한다.”라고 하니 비둘기가 웃어 가로되 “자네가 우는 소리를 고치지 않고 거처만 옮기면 여전히 또 미워함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자기의 악한 일은 고치지 않고 다른 데로만 가려고 하는 이가 있으면 이것 역시 이 비둘기에게 웃음을 살 것입니다.

	이어 적기	끊어 적기	거듭 적기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7~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르네상스는 신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문화를 추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미술계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받아 현실을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래서 미술사에서는 사실적인 미술의 시작을 15세기 르네상스로 본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화면에 재현하려면 3차원의 현실을 2차원의 캔버스에 변환해야 하는데, 그 변환 기법이 ‘선 원근법’이다. 15세기 이전의 화가들도 원근법을 사용했지만, 이때의 원근법은 기하학에 바탕을 둔 선 원근법이 아니라 경험적 원근법이었다. 그들은 거리가 멀어지면 크기가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에 어색한 부분이 많았다. 반면 15세기의 선 원근법은 기하학에 바탕을 두고 정확한 비례를 계산해서 그리는 기법이다. 화가들은 선 원근법을 사용하여 비로소 현실의 공간을 정확한 비례에 따라 화폭에 재현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 원근법을 익혔다. 우선 화가와 대상 사이에 격자무늬가 그려진 투명한 창인 그리드를 세우고, 화가의 눈 앞에는 구멍이 뚫린 기구인 파인더를 놓는다. 화가는 파인더의 구멍을 통해 그리드 너머로 보이는 대상을 책상 위의 모눈종이에 옮겨 그린다. 화가는 그림이 다 끝날 때까지 눈을 떼면 안 된다. 눈을 움직이면 바라보는 위치가 달라져 선 원근법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드는 정확한 상을 얻는 데에는 유용했지만 사용하기에는 불편했다. 화가들은 이런 연습을 장기간 한 후에야 그리드를 세우지 않고 대상을 선 원근법에 따라 그릴 수 있었다.

선 원근법에 따라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물의 형태나 색채가 흐릿해지는 데에도 주목하였다. 이것은 대기 중의 공기 즉, 수분과 먼지가 빛을 난반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화가들은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 세밀한 붓질로 물체의 윤곽을 문질러 흐릿하게 처리하였는데 이것을 ‘공기 원근법’이라 한다. 이 방법은 가까운 것은 진하고 선명하게, 먼 것은 흐리고 얇게 표현하여 공간의 사실감을 한층 높여 주었다.

㉠ 당시의 화가들은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선 원근법, 공기 원근법 외에도 해부학, 명암법 등을 전문적인 교육 기관에서 배워야 했다. 그런데 화가들의 이러한 고된 상황은 카메라 옵스큐라의 출현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었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어두운 방의 한 부분에 구멍을 뚫어 밖의 풍경이 구멍을 통해 들어와 맞은편 막에 상을 맺히게 하는 장치이다. 화가들은 그 막에 종이를 대고 맺힌 상을 베끼기만 하면 밖의 풍경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었다. 이 장치는 초기에는 너무 커서 이용에 불편했지만 나중에는 갖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아져 많은 화가들이 이용했다. 당시의 그림 중에는 놀랄 만큼 정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화가의 실력이 들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카메라 옵스큐라의 사용과 무관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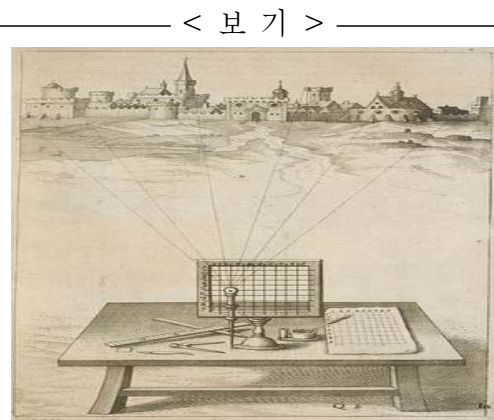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르네상스 미술을 바라보는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르네상스 미술을 감상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③ 르네상스 미술과 관련된 기법과 장치를 설명하고 있다.
- ④ 르네상스 미술이 종교에 끼친 파급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
- ⑤ 르네상스 미술의 기원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18.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5세기 이전에도 화가들은 원근감을 고려하였다.
- ② 선 원근법은 르네상스 문화를 토대로 태동되었다.
- ③ 카메라 옵스큐라는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유용했다.
- ④ 경험적 원근법은 선 원근법과 공기 원근법의 성과로 완성되었다.
- ⑤ 공기 원근법을 사용한 화가들은 멀리 있는 사물의 윤곽을 흐릿하게 처리하였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림의 책상 위에 놓인 그리드는 르네상스 시기 어느 화가가 풍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 ① 그리드는 기하학적 방법을 회화에 응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겠군.
- ② 그리드를 이용하여 먼 곳의 풍경을 진하고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겠군.
- ③ 그리드를 사용하여 3차원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화면에 재현하려 했겠군.
- ④ 그리드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었겠지만 정확한 상을 얻기 위해 그것을 감수했겠군.
- ⑤ 그리드의 사용 외에도 공기 원근법, 해부학, 명암법 등을 사용하면 풍경을 보다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었겠군.

20. <보기>의 ‘고갱’이 ㉠을 비판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19세기 화가 고갱은 미술이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을 그리는 정도라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음의 눈으로 화가의 순수한 감정과 정신을 그려 나갔다.

- ① 선명하고 강렬한 색채가 드러나야 사실적인 미술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내면의 불안이나 공포에 주목해야 현실을 화면에 똑같이 옮길 수 있습니다.
- ③ 대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④ 자연보다는 인간의 문명에 초점을 맞춰 그 성과를 드러내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 ⑤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화가의 내면세계를 표현해야 합니다.

[21 ~ 2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7~18 세기의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이에 대한 답을 경험에서 찾으려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의 범주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로크는 경험하기 전에 정신에 내재하는 타고난 관념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만 지식을 ㉠ 획득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정신은 그 어떤 관념도 없는 백지와 같은 상태인데 경험을 통해 물질에 대한 감각을 지각함으로써 관념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관념이 지식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고 과정을 통해 로크는 물질을 지식의 근원으로 여겨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로크는 물질의 실재(實在)를 ㉡ 인정하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감각, 관념 등의 사고 과정과 그 과정을 주관하는 정신의 실재도 인정하였다.

버클리도 로크의 인식 분석이 오히려 물질의 실재를 부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버클리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감각의 다발’일 뿐이라고 했다. 예컨대 우리가 먹는 밥은 우선 시각, 후각, 촉각, 다음에는 미각, 다음에는 체내의 ㉢ 포만감일 뿐이다. 만일 우리에게 감각이 없다면 우리에게 밥이라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인식하는 밥은 감각의 다발 또는 기억의 다발이므로 정신의 상태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실재는 정신만이 남게 된다.

흄은 버클리가 외부의 물질을 부정한 방식을 그대로 우리 내부의 정신에 적용하여 사고 과정을 ㉣ 주관하는 정신도 부정하였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감각, 기억, 개별적 관념만 지각할 수 있을 뿐이고 사고 과정을 주관하는 정신을 지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 과정을 주관하는 정신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흄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을 감각, 기억, 개별적인 관념 등의 영역으로 한정하였다.

— 흄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과학적 지식마저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과학적 지식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개별적 사실로부터 인과 관계나 법칙을 찾아내어 ㉤ 체계화한 결과이다. 우리는 과학적 추리를 할 때마다 자연이 한결같은 결과를 낳는 점을 가정하고 있는데, 그 가정은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과 관계나 법칙을 지각할 수 없고 다만 경험의 직접적인 대상인 특정 사건과 그런 사건의 연속만을 지각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흄에게 필연성을 갖고 있는 지식은 수학 공식만이 남는다. 수학 공식이 항상 참된 이유는 동어 반복 — 술어가 이미 주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 — 이기 때문이다. $3 \times 3 = 9$ 는 3×3 과 9가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 지식이다. 따라서 지식은 수학적 지식과 직접적 경험에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1.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의 범주 - 경험주의 철학자들의 견해 차이를 중심으로
- ② 물질과 정신의 관계 - 경험주의 철학자 버클리를 중심으로
- ③ 인과 관계의 필연성 - 수학과 과학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④ 경험의 의의 - 경험주의 철학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⑤ 인식의 과정 - 서양 철학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로크는 지식의 근원인 물질의 실재를 인정하였다.
- ② 로크는 감각, 관념 등의 사고 과정을 주관하는 정신의 실재를 인정하였다.
- ③ 버클리는 물질에 대한 감각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였다.
- ④ 버클리는 경험적으로 지각하지 않아도 물질의 실재를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⑤ 흄은 사고 과정을 주관하는 정신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23.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흄의 견해로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지금까지 관찰한 결과 겨울에는 날씨가 추웠다. 자연은 한결같은 것이므로 ㉥ 겨울이 되면 항상 날씨가 추울 것이다.

- ① 한결같은 현상이므로 과학적 지식이다.
- ② 인과 관계로부터 추론한 사건의 연속이다.
- ③ 알 수 없는 가정으로부터 추론한 결과이다.
- ④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개별적 사실이다.
- ⑤ 과학적 추리의 대상이므로 인식의 대상이다.

24.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얻어 내거나 얻어 가짐.
- ② ㉧: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
- ③ ㉨: 넘치도록 가득 차 있는 느낌.
- ④ ㉩: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함.
- ⑤ ㉪: 자기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

[25 ~ 2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시료에 어떤 물질의 분자가 들어 있는지 알기 위해 여러 과학 기술을 동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인 질량 분석법은 동일한 전기적 힘을 받는 조건에서 각 이온이 질량에 따라 이동 속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분자의 질량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분자의 질량이 클수록 이온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분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질량 분석법은 1960년대 이후 표준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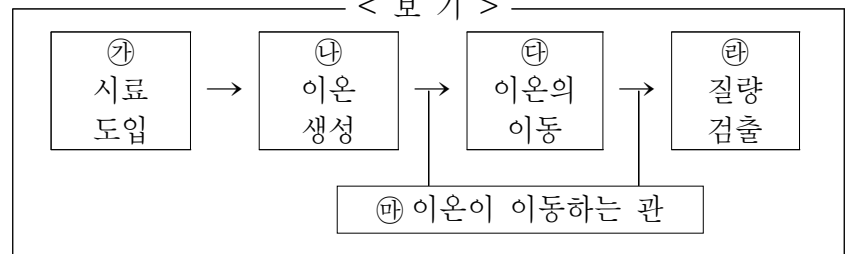
그러나 질량 분석법으로는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의 질량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는 구조가 복잡하고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온화를 위해 에너지를 가하면 이온화되기 전에 이미 변성이 되어 본래의 화학적 구조를 알 수 없게 되곤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1980년대 말디(MALDI)를 사용한 학자들에 의해 해결되었다.

말디는 고분자 시료에 이온화를 도와주는 화학적 완충제를 섞은 후 레이저를 쏘아 시료를 이온화하는 방법이다. 화학적 완충제는 레이저의 에너지를 적당하게 흡수하여 열에 약하고 깨지기 쉬운 고분자의 시료를 감싸 주어 원래 시료의 성질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의 이온화를 도와준다. 이후 고분자 이온들은 관 내부에서 전기적 힘을 동

[A] 일하게 받으며 이동하게 된다. 이때 각 이온은 다른 이동 속도를 지닌다. 섞여 있는 상태의 이온들 속에서도 각 이온의 질량을 산출해 낼 수 있는데, 이는 이온의 질량이 클수록 이온의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 섞여 있는 상태에서 분리된 각 이온들은 검출판에 도달하여 각 이온의 질량에 대한 자료를 전달한다. 이로써 시료에 어떤 분자들이 존재하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고분자 시료에 대한 말디의 적용은 생화학 연구에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 방법으로 인해 생체를 구성하는 고분자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미지의 물질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25. <보기>는 [A]를 도식화한 것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화학적 완충제를 섞어 형성된 시료를 사용한다.
- ② ㉡: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물질은 변성을 일으켜 이온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③ ㉢: 각 이온의 이동 속도는 차이를 보인다.
- ④ ㉣: 분리된 이온들이 분자의 질량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낸다.
- ⑤ ㉤: 이 과정에서 이온에 가해지는 전기적 힘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26. ㉠의 원리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온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분자의 이동 시간은 오래 걸린다.
- ② 분자의 질량이 클수록 이온의 이동 속도는 느리다.
- ③ 시료의 양이 많을수록 이온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 ④ 이온의 질량이 클수록 분자의 질량은 작다.
- ⑤ 이온이 잘 섞일수록 이온의 질량은 크다.

[27 ~ 3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30년대 대공황 상황에서 케인스는 당시 영국과 미국에 만연한 실업의 원인을 총수요의 부족이라고 보았다. 그는 총수요가 증가하면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촉진되고 가계의 소득이 늘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케인스는 총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총수요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계의 소비에 주목하였고, 소비는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케인스는 절대소득가설을 내세워,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소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소득이 없더라도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소비인 기초소비가 존재하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소비도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절대소득가설은 1950년대까지 대표적인 소비결정이론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쿠즈네츠는 절대소득가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소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쿠즈네츠는, 미국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각 가계의 실제 소비 행위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소득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절대소득가설로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프리드만은 소비는 장기적인 기대소득으로서의 항상소득에 의존한다는 ㉠ 항상소득가설을 내세웠다. 프리드만은 실제로 측정되는 소득을 실제소득이라고 하고, 실제소득은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항상소득이란 평생 동안 벌어들이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의 매기 평균 또는 장기적 평균 소득이다. 임시소득은 장기적으로 예견되지 않은 일시적인 소득으로서 양(+)일 수도, 음(-)일 수도 있다. 프리드만은 소비가 임시소득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오직 항상소득에만 의존한다고 보았으며, 임시소득의 대부분은 저축된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월급과 같이 자신이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고려하여 소비를 하지, 예상치 못한 복권 당첨이나 주가 하락에 의한 손실을 고려하여 소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항상소득가설을 바탕으로 프리드만은 쿠즈네츠가 발견한 현상을, 단기적인 소득의 증가는 임시소득이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비가 늘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항상소득가설에 따른다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 단기적인 재정 정책보다 장기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정부가 일시적으로 세금을 줄여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른 소비 진작을 기대한다 해도 가계는 일시적인 소득의 증가를 항상소득의 증가로 받아들이지 않아 소비를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27. 위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들의 개념을 비교하여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가설들의 향후 발전 양상을 예측하고 있다.
- ③ 대립되는 가설의 장점을 설명한 후 절충점을 끌어내고 있다.
- ④ 특정한 가설의 한계를 제시한 후 새로운 가설을 소개하고 있다.
- ⑤ 특정한 가설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28.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케인스는 소득이 없어도 기초소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 ② 케인스는 대공황 상황에서 총수요를 늘릴 것을 제안하였다.
- ③ 쿠즈네츠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소비 행위를 분석하였다.
- ④ 프리드만은 쿠즈네츠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가설을 내놓았다.
- ⑤ 케인스는 가계가 미래의 소득을 예측하여 소비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29. <보기>를 ㉠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정년 때까지 ㉠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회사원 김 씨는 운 좋게 ㉡ 경품 행사에서 당첨되어 큰돈을 받았다. 그렇다고 지난달에 비해 ㉢ 씹씀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 ① ㉠은 김 씨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항상소득에 해당한다.
- ② ㉡는 양(+)의 임시소득에 해당한다.
- ③ ㉢는 항상소득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는 김 씨의 실제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⑤ ㉠과 ㉡는 김 씨의 실제소득에 포함된다.

30. ㉡의 이유를 프리드만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기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현재 소득에 영향을 주어 소비를 늘리기 때문이다.
- ② 단기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임시소득이 증가하여 가계가 소비를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 ③ 장기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저소득층의 임시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④ 장기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항상소득이 증가하여 가계가 소비를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 ⑤ 장기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임시소득에 영향을 미쳐 실제 소득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31 ~ 3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삼수갑산(三水甲山)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뇨
오고가니 기험(奇險)타 아하 물도 많고 산(山) 첩첩이라 아하하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가네
삼수갑산 멀더라 아하 **촉도지난(蜀道之難)***이 예로구나 아하하

삼수갑산이 어디뇨 내가 오고 내 못가네
불귀(不歸)로다 내 고향 아하 **새가 되면** 떠가리라 아하하

님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가네 내 못가네
오다가다 야속타 아하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아하하

내 고향을 가고지고 오호 삼수갑산 날 가두었네
불귀(不歸)로다 내 몸이야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아하하
- 김소월, 「삼수갑산」 -

* 촉도지난: 촉나라로 가는 길의 어려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의미로 사용됨.

(나)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 나간 후
꿈틀거리는 ㉡ **검은 빨발** 때문이었다
빨발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 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꿇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위(無爲)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포구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빨발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 문정희, 「울포의 기억」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여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특정 공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어조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김소월은 땅, 집, 고향 등을 모티프로 여러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적인 힘이나 상황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로 그려진다. 김소월은 이를 통해 식민지 시대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귀향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절망적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 ① 1연: ‘물도 많고 산 첩첩’이라는 표현을 통해,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2연: ‘촉도지난’이라는 표현을 통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실향민의 처지를 암시하고 있다.
- ③ 3연: ‘새가 되면’이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설정을 통해, 귀향할 수 없는 절망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④ 4연: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다는 표현을 통해, 실향민이 된 것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 ⑤ 5연: ‘못 벗어난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 민족이 식민지 현실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33. (나)의 ㉠, ㉡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순수한 자연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공포를 느끼게 하는군.
- ② ㉠은 푸른 이미지로 생명과 희망을 환기시키고, ㉡은 검은 이미지로 허무와 어둠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군.
- ③ ㉠은 힘겨운 삶을 극복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환희를 상징하고, ㉡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식을 상징하는군.
- ④ ㉠은 삶과 관련하여 깨달음을 주지 못하지만, ㉡은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명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는군.
- ⑤ ㉠은 화자가 미래에 살아갈 모습에 대해 상상하게 해 주고, ㉡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 주는군.

[34 ~ 3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어릴 적 가난하게 살았던 나기배 씨는 치열한 경쟁 끝에 기업의 이사로 승진한다. 어느 봄날, 나기배 씨는 마당의 정원을 가꾸다 누군가 숨겨 놓은 녹슨 깡통을 발견한다.

깡통을 기울이자 소리를 내며 땅바닥에 쏟아진 것은 수백 개의 유리구슬이었던 것이다.

실사 핵탄두를 파냈다고 해도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으리라. 나기배 씨는 땅바닥에 아예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는 구슬을 한 주먹 집어 들고 무슨 진기한 보석이라도 감정하듯 진지하게 들여다보았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분명 유리구슬이었고, 그것도 속에 바람개비 모형의 색띠가 들어 있는 놀이용 색 구슬들이었다.

“아, 이거야말로 보물단지를 캐낸 거로군…….”

[A] 나기배 씨는 비로소 미소를 머금었다. 보배…… 그는 기억해 냈다. 우리는 이것을 보배라고 했지. 보통 구슬 열 개 맞잡이로 생각할 만큼 귀중하게 여기던 물건이다. 그는 다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왠지 가슴의 울림이 깊이 남았다.

아이들 방을 향해 그는 소리쳤다.

“얘들아, 너희들 뭐 하고 있니?”

텔레비전 탓이다. 아이들이 알아듣기까지는 네댓 차례나 목청을 돋우어야만 하였다. 텔레비전의 볼륨이 낮아지더니 큰 녀석이 얼굴만 내밀었다.

“나 불렀어, 아빠?”

“이리 좀 나와 보렴.”

“왜요?”

“와서 보면 안다…….”

“뭔데 그래요? 우리 텔레비 보구 있는데…….”

녀석은 선뜻 나오려 들지 않는다. 만화나 타잔영화라도 방영 중인 모양이다. 그놈의 텔레비전……, 나기배 씨는 속으로 투덜댔다. 백 프로 황당무계한 스토리에다가 엉뚱한 연애심리 같은 걸 비벼 넣어 아이들의 순결한 녀를 홀리는…….

……(중략)……

끝끝 혀를 차며 나기배 씨는 또 생각하였다. 우리들의 손은 어떠했던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거칠고 투박하기 짝이 없었던 손……, 그러나 우리들의 손은 매사에 얼마나 기민하고 강인하였던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깐 그래…….”

나기배 씨는 안타깝게 소리쳤다. 그는 되풀이하여 시범을 보이고 난 후 아이들을 따라 하게 하였다. 그러자 녀석들은 차츰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오래지 않아 큰 녀석이 먼저 손을 털고 냉큼 물러서 버렸다.

“시시껄렁해!”

조금은 열적은 표정인 채로 녀석은 단호하게 선언하였다.

“재미도 없이 손만 더러워졌잖아!”

그러자 둘째도 형을 뒤따랐다.

“그래, 아주 시시껄렁해. 지저분하게 놀았다구 엄마한테 혼날 거야 아마…….”

나기배 씨는 왠지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껏 집념을 가지고 땀 흘려 쌓아 올렸던 무언가를 녀석들이 일고의 미련도 없이 허물어 버리고 마는 듯한 기분이었기 때문에 그 감정은 거의 배신감에 가까운 그런 것이었다. 갑자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그는 큰 녀석의 이마를 쥐어박았다.

“뭐야? 시시껄렁하다구?”

고함치듯 그는 말했다.

“네 녀석들이 멍청하니깐 그렇지 이게 왜 시시껄렁해? 뭐, 지저분하다구? 야 임마, 이 흙이 어째서 지저분하단 말이나? 어째서 불결해? 병이 든 건 차라리 네놈들의 고 하얀 손이다 이눔들아…….”

울컥 넘어오는 열기를 토해 내다 말고 나기배 씨는 멍해졌다. 이 무슨 맹랑한 것인가. 그는 폴썩 웃고 말았다. 느닷없이 머리통을 쥐어박혀 잔뜩 부어터진 뺨짝을 하고 있던 큰 녀석이 호되게 쏘아붙였다.

“아빠 괜히 신경질이야. 재미있음 아빠 혼자서나 해!”

그러자 머쓱해 있던 둘째도 금세 기를 폈다. 녀석은 호주머니 속에 숨어 담았던 구슬들을 한 줍씩 꺼내 팽개쳤다.

“그래 아빠 혼자서나 해. 형, 우리 텔레비 보자. 은하철도 999 같은 거.”

의기투합한 두 녀석은 그 즉시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가 버렸다. 모든 것—일테면, 밝고 따뜻한 봄볕과 파 뒤집어 놓은 흙과, 거기 점점이 흩뿌려져 있는 색색의 고운 구슬들과 함께 그들의 아버지까지도 죄다 미련 없이 내버려둔 채 말이다…….

㉠ 혼자가 된 나기배 씨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였다. 더 이상 삼질하고픈 생각이 없었다. 어찌, 흙을 파 뒤집는 일만이겠는가. 지금까지 열심히 매달려 씨름해 왔던 온갖 일들은 물론, 앞으로 새로이 부딪치게 될 작업들에 대해서조차도 아무런 기대나 의욕을 느낄 것 같지 않았다. 참 맹랑한 노릇이군. 그는 속으로 중얼댔다. 불혹의 생애가 너무나 가볍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꺾은 채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이제는 아무도 미련 두지 않는 색 구슬들이 파헤친 흙더미 위 여기저기에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마침 비스듬히 기운 햇빛을 받아 그것들은 잘디잔 별뿔기처럼 곱게 빛나고 있었다. ㉡ 다시 땅속 깊이 은닉해 둘 필요는 없으리라. 그것들은 이제 트랙이나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며 잠깐씩 보는 이의 향수 같은 것을 희미하게 자극하다가 끝내는 발길에 채여 시궁창이나 쓰레기더미 같은 데로 영영 모습을 감추리라.

— 이동하, 「밝고 따뜻한 날」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 태도로 사건을 서술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②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상적 공간을 설정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한 사건을 여러 서술자가 진술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여 그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5. ‘색 구슬’에 대해 ㉠과 같이 판단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래부터 가치가 없던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 ② 앞으로 그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 ③ 이제야 그 가치를 드러낼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 ④ 과거에 지녔던 가치가 이제는 외면받기 때문에
- ⑤ 예전의 가치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36. [A]를 <보기>의 시나리오로 각색한다고 할 때,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S#23. 가정집의 정원

깜짝 놀라며 땅바닥에 주저앉았던 나기배 씨는 정신을 차리고는 주먹 가득 색 구슬들을 집어 들어 꼼꼼히 들여다본다. 색 구슬들이 햇빛에 아름답게 반짝인다. (C.U.)

나기배 씨 : (혼잣말로) 내가 방금 보물단지를 찾군.

나기배 씨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큰 손에 가득한 색 구슬을 바라본다. (O.L.)

S#24. 마을의 공터

소년(나기배 씨)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작은 손에 가득한 색 구슬을 바라본다. 소년의 친구가 부러운 표정으로 소년을 쳐다본다.

소년의 친구 : (간절하게) 기배야, 네가 가진 색 구슬 하나만 내 구슬 다섯 개랑 바꾸자, 응?

소년(나기배 씨) : 싫어, 이걸 나한테 보배란 말이야. 네가 가진 보통 구슬 열 개를 줘도 안 바꿀 거야.

S#25. 가정집의 정원

나기배 씨 : (색 구슬을 보며 미소 짓다 혼잣말로) 녀석들에게 색 구슬이 뭔지 알려 줘야겠어. 그런데 이 녀석들 뭐하고 있지? (방 쪽을 바라보며) 어휴, 또 텔레비전에 빠져 있겠군.

S#26. 어두컴컴한 방안

방 밖에서 나기배 씨가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두 아이가 멍한 표정으로 만화 영화가 방영되는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 잠시 후, 큰 아들이 일어나 텔레비전의 볼륨을 줄이더니 방 밖으로 얼굴만 내민다.

- ① S#23에서 확대 촬영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사건의 핵심 소재인 색 구슬을 강조해야겠어.
- ② S#24의 회상 장면을 통해 나기배 씨에게 색 구슬이 주는 의미를 드러내야겠어.
- ③ S#24의 소년의 친구와 S#26의 두 아이가 동일한 표정을 짓게 하여 절박한 상황이 반복될 것임을 드러내야겠어.
- ④ S#25의 나기배 씨의 대사를 통해 S#26의 나기배 씨가 아이들을 부르는 이유를 드러내야겠어.
- ⑤ S#25에서 나기배 씨가 짐작한 상황을 S#26에 구현하여 장면을 연결해야겠어.

37.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밝고 따뜻한 날」은 세대 단절로 인해 상처 받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텔레비전’과 ‘구슬 놀이’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기배 씨는 자신이 살아 온 삶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아이들과의 소통에 실패한다. 이를 통해 기성세대가 겪는 소외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① 텔레비전에 대한 나기배 씨와 아이들의 반응의 차이에서 세대 단절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군.
- ② 나기배 씨가 자신의 손을 기민하고 강인했다고 생각하는 데서 지난 삶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군.
- ③ 구슬 놀이를 거부하는 아이들을 대하는 나기배 씨의 태도에서 세대 단절의 극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군.
- ④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러 간 후 혼자만 남겨진 나기배 씨의 상황에서 기성세대가 겪는 소외를 엿볼 수 있군.
- ⑤ 나기배 씨가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에서 세대 단절로 인해 기성세대가 받는 상처를 엿볼 수 있군.

38. ㉠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담상조(肝膽相照)
- ② 망연자실(茫然自失)
- ③ 전전긍긍(戰戰兢兢)
- ④ 절치부심(切齒腐心)
- ⑤ 새옹지마(塞翁之馬)

[39 ~ 4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남윤은 전란으로 인해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가게 된다. 왜왕이 남윤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공주와 결혼 시키려 하나 남윤은 본국에 아내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위기에 빠진다. 하지만 공주의 간언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고, 공주와 친밀한 사이가 된다. 그 후 어느 날 남윤은 꿈을 꾸게 된다.

푸른 옷을 입은 선녀가 남윤에게 말하기를,
“저 붉은 도포에 금관을 쓰신 분은 옥황상제요, 좌우에 시위하는 이는 여러 부처와 신선이요, 녹의홍상한 이는 모두 선녀입니다. 오늘이 마침 칠월 칠석이매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나는 고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옥황상제께서 명하시어 인간에 적강한 선관과 선녀를 불러 배필을 정하려 하심이니 그대를 부르옵거든 대답하옵소서.”

하고, 즉시 올라가 남윤을 패초*하였다고 아뢰니, 옥황상제가 묻기를,

“추성(箒星)*은 배필을 거느리고 왔느냐?”

하였다.

한 선녀가 대답하기를,

“다 불러왔나이다.”

옥황상제가 전지하여 각각 차례로 부르라 하시니, 한 노승이 육환장(六環杖)을 짚고 장삼을 입고 염주를 목에 걸고 앞에 나와 명을 듣잡고 섬돌에 내려서며 푸른 옷을 입은 선녀에게 명하여 남윤을 부르라 하였다. 선녀가 명을 받들어 남윤을 인도하여 섬돌 아래에 세우고 옥황상제의 명을 전하기를,

“추성으로 말미암아 세 선녀가 투기하여 남방의 재변이 매우 심하기로 인간 세상에 적강시켰으니, 인간에 거처한 연한이 지나거든 모두 모여 즐기다가 나이 칠십이 차거든 올라오되, 월중선은 그 중에 죄가 가벼우니 십 년 후에 먼저 불러 올리리라. 너희는 자세히 명령을 들으라.”

하시니, 남윤의 뒤에서 각각 승명하였다. 남윤이 놀라 돌아보니 하나는 일본국 공주요, 하나는 함흥부 옥경선이요, 하나는 잘 아는 얼굴이로되 옷고름에 혈서를 찼으니 반드시 이씨 석랑이었다.

남윤이 창황 중에 노승에게 묻기를,

“네 사람 중에 월중선은 무슨 연고로 구태여 십 년 만에 올라오라 하시나이까?”

노승이 말하기를,

“석랑은 옥경선과 일심이 되어 월중선을 모해하는 까닭에 세 사람은 조선에 적강하며 고생하며 지내게 하고, 월중선은 그 중에 죄가 적으므로 일본국 공주가 되어 편안히 즐기게 함이라. 네 사람을 각각 적강시킬 때에 월중선은 일본으로 보내고 세 사람은 조선 안변 서화사에 부탁하여, 추성은 남두성의 독자가 되고, 석랑은 이경희의 여식이 되고, 옥경선은 그 중에 죄가 더 무거워서 함흥의 기녀가 되어 고생하게 하였나니, 나는 안변 서화사의 부처라. 그대들이 어찌 나를 모르느냐?”

하고, 이어서 소매에서 푸른 구슬 네 개를 내어 각각 하나씩 주며 말하기를,

“이로써 일후 표식을 삼아 천생배필인 줄 알라. 그리고 인간에 내려가 월중선을 만나 십 년 동안 함께 즐기다가 먼저 올려 보내고, 본국에 돌아가 석랑과 옥경선을 찾아 함께 즐기다가 나이 칠십이 차거든 올라오라.”

하고 봉황으로 하여금 인도하여 나가게 하였다. 중문을 나오다가 실족하여 높은 섬돌에서 떨어져 놀라 깨달으니 일장춘몽이었다. 한 손에 구슬이 쥐여 있거늘 남윤이 탄식하기를,

“몽사가 기이하도다.”

하고 태자에게 전하여 왜왕께 아뢰었다. 왜왕이 기특히 여겨 즉시 공주와 왕비에게 이르니 공주의 몽조 또한 이러하고 구슬이 있었다. 즉시 ㉠ 구슬 두 개를 서로 비교하니 터럭만큼도 다름이 없으니, 왜왕이 더욱 기특히 여기시어 말하기를,

“이는 천정배필이니 누가 감히 말리리오?”

즉시 택일하여 화촉지례를 이루매, 교배석에 나가니 신랑의 아름다운 풍채와 신부의 선명한 태도는 하늘이 감동할 만하였다. 태자궁 서편에 공주궁을 짓고 많은 보배를 상으로 주며 궁녀 삼백을 주고 궁궐 이름을 청천궁(靑天宮)이라 하였다.

부부의 금슬이 비할 데 없으나 마침내 수태(受胎)함이 없으니 왕과 왕비 크게 근심하였다. 이러구러 십 년이 지나매 일일은 공주가 가장 비감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우리 인연이 멀지 아니하였으니 연연한 정을 장차 어찌하리오?”

남윤이 놀라 묻기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오니까?”

공주가 대답하기를,

“군자는 십 년 전 꿈속에 요지연에 갔던 일을 잊고 계시나이까? 첩의 사주를 보니 금년 팔월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첩이 죽으면 군자를 본국에 돌려보내지 아니하리니, 이때를 타서 도망함이 마땅하나 만경창과에 어찌 도달하리오? 첩이 죽더라도 다른 공주가 있으니, 알지 못하겠습니까. 군자는 채취하고자 하나이까?”

남윤이 말하기를,

“공주와 더불어 하늘이 정한 인연이 있기로 마지못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공주가 나를 이렇듯이 돌보아 생각하시니 감격하거니와 본국에 있는 배필이야 어찌 일시나 잊으리오? 바라건대 공주는 이제 영결한다고 오열하시니 느껴운 마음이 측량없습니다. 공주가 별세하시면 만리타국에서 외로운 나는 누구를 의지하여 살리오? 차라리 나도 공주와 같이 죽사와 천행으로 주인 없는 외로운 혼이나마 본국에 돌아감과 같지 못하도다.”

하니, 공주가 또한 비감하여 말하기를,

“첩이 이제 죽으면 군자는 넓고 넓은 푸른 바다에 돌아갈 길이 아득할 것이니, 평생의 계교를 발하여 군자가 무사히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고 서로 손을 잡고 종일 통곡하였다.

- 작자 미상, 「남윤전」 -

* 패초: 명을 내어 부름.

* 추성: 천상계에 있을 때 남윤의 호칭.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부정적인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 ④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초월적 존재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40. ㉠의 서사적 기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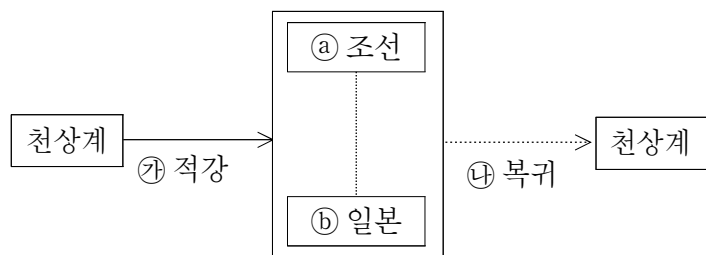
- < 보 기 > —
- ㄱ. 꿈과 현실을 연결해 주는 매개가 된다.
 ㄴ. 남윤과 공주의 인연을 확인하는 증거가 된다.
 ㄷ. 남윤이 영웅적 인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된다.
 ㄹ. 공주와 왜왕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남윤전」은 남녀 주인공들이 같은 꿈을 꾸게 되며, 이들이 꿈속에서 들은 예언이 지상에서 그대로 실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특징을 아래의 공간의 변화와 연결하여 읽어 봅시다.



- ① ‘남윤’과 ‘공주’는 꿈을 통해 자신들이 ㉠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는군.
 ② ‘공주’는 자기가 죽은 후 ‘남윤’이 곧바로 ㉣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군.
 ③ ‘공주’가 가장 먼저 ㉣를 하게 되는 이유는 ㉡ 이전의 죄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군.
 ④ ‘남윤’은 공주가 ㉣를 하게 된 후에 ㉡로 돌아가 ‘석랑’과 ‘옥경선’을 만나겠군.
 ⑤ ‘남윤’은 ㉢에서 ‘공주’와 결혼했지만, ㉡에 있는 아내를 잊지 못하고 있군.

4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 [B]에는 상대방을 도우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③ [A]와 [B]에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불신감이 표출되어 있다.
 ④ [A]와 [B]는 모두 과거 일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원망하고 있다.
 ⑤ [A]에는 이상향에 대한, [B]에는 세속적 공간에 대한 지향이 암시되어 있다.

[43 ~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 등에 시름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두고
 인세(人世)를 다 니젧거니 날 가는 주를 알라

<제1수>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언제나 ㉡ 져놓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흐거든 더욱 무심(無心)흐애라

<제2수>

청하(靑荷)*애 바들 뺏고 녹류(綠柳)에 고기 썩여
 노적화총(蘆荻花叢)*애 비 먹야두고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너 부니 아르실가

<제3수>

산두(山頭)에 한운(閑雲)이 기(起)흐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 비(飛)이라

무심(無心)코 다정(多情)흐니 이 두 거시로다
 일생(一生)애 시르물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제4수>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애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랴

<제5수>

- 이현보, 「어부 단가」 -

- * 청하: 푸른 연잎.
 * 노적화총: 갈대와 물억새의 덩불.
 * 일반청의미: 자연으로 인해 순수해진 내면.
 * 어주: 낚시질할 때 쓰는 조그만 배.
 * 제세현: 나라를 구제할 현명한 선비.

43.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통해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② 영탄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④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⑤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현보는 만년에 혼탁한 정계(政界)에 싫증을 느껴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와 여생을 보냈다. 그는 자연을 즐기며 시작(詩作)에 힘썼으며, 고려 때부터 전해지던 「어부가」를 「어부 단가」로 개작하기도 하였다. 이현보는 이 작품을 통하여 유유자적하는 삶과 우국의 심정을 형상화하였다.

- ① ‘어부의 생애’는 귀향 후의 유유자적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심장홍진’은 혼탁한 정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한운’과 ‘백구’는 작가가 즐기는 자연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니즌 스치 이시랴’는 사직한 후에도 우국의 심정을 지녔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내 시름’은 시작(詩作)에 따르는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45. 윗글의 ㉠과 <보기>의 ㉡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몹시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식식히고
 비 미여라 비 미여라
 ㉠ 머흔 구름 혼(恨)티 마라 세상(世上)을 ㄴ리온다
 지국충(至國忠) 지국충(至國忠) 어스와(於思臥)
 파랑성(波浪聲)*을 염(厭)티 마라 던훤(塵喧)*을 막느또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 —

* 파랑성: 물결 소리.
 * 던훤: 속세의 시끄러움.

- ① ㉠과 ㉡는 모두 역동적인 느낌을 강화하고 있다.
- ② ㉠과 ㉡는 모두 화자가 도달해야 할 도덕적 가치를 상징하고 있다.
- ③ ㉠과 ㉡는 모두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을 차단하고 있다.
- ④ ㉠은 감흥을 자아내고 있고, ㉡는 향수를 유발하고 있다.
- ⑤ ㉠은 공간적 배경을, ㉡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